



눈길 '엉금엉금' 광주지역에 최고 8.7cm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지난 30일, 출근길 교통혼잡이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사고를 우려해 시속 20~30km대로 서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폭설 교통대란

광주·전남북 교통사고 잇따라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지난 30일부터 곳에 따라 최고 11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출근길 교통혼잡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부터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내린 적설량은 전주가 11cm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순창 9.5cm ▲순천 9cm ▲광주와 남원 각각 8.5cm ▲군산 7cm ▲정읍 6.9cm ▲영광 4cm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31일까지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최고 20cm 가량의 눈이 더 내리며, 눈은 1일째 모두 그친 뒤 광주위가 닦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2일까지 계속된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주요도로 '통제', 출근길 교통대란=광주지역은 전체 90개 노선 중 도심과 외곽을 오가는 시내버스 19개 노선이 단축 운행 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선 구례와

곡성·지리산 성삼재 등 고갯길 3곳이 통제됐으며, 해상에선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48개 항로의 연안 여객선 79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도로가 밤사이 얼어붙고 출근길 차량들이 더디게 운행하면서 주요 도로 곳곳에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또 상당수 시·도민들이 자가용 대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돌리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도민들이 지각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교통사고 잇따라=30일 오전 7시5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순천지점 176km 지점에서 서울로 향하던 K고속 소속 버스가 전복되면서 승객 김모(43)씨 등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새벽 2시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순천지점 160km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서가던 8회차 차 등 3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209) 김종두



익산 시 의심 닭 살처분

익산시 망성면의 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로 이 농장과 인근 농장의 닭 10만7000 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익산시 망성면 무령리 종계장의 닭 1만7000 마리와 인근 농장의 닭 9만 마리 등 총 10만7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류정영기자 knews@

허위계약서로 15억 가로챈 조폭

○...순천경찰은 지난 30일 저가의 농지를 고가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전 조폭 P(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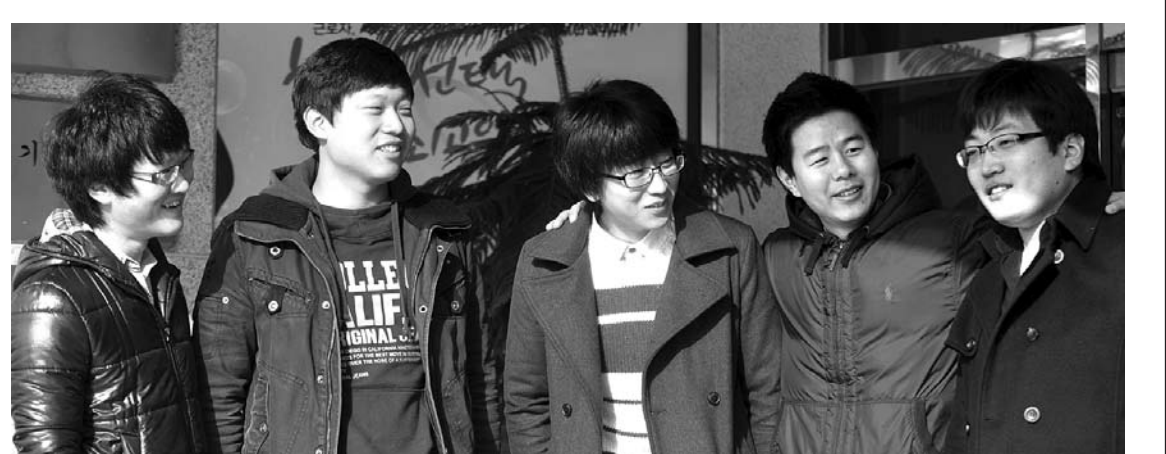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5년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역 수지사에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농업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뒤 저가의 농지를 고가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15억원을 가로챈 혐의.

○...P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B씨와 짜고 저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고가에 산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해당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 돈을 받아 가로챈다는 것.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토끼해, 가슴 벅찬 사회 첫 발

삼성전자 입사 한국폴리텍V대학 5명 ... "늦게 시작했지만 더 큰 꿈 이뤄야죠"

신묘년을 누구보다도 가슴 벅차게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큰 꿈을 이룬 이들에게 새해의 아침은 즐겁기만 하다.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에는 하나같이 환한 미소와 생동감 넘치는 10명의 학생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졸업예정자들이다. 이미 취업해 현장에 투입된 상태지만 광주공장이 연말 휴무에 들어가 자 이날 모교를 방문한 것.



1월부터 삼성전자에서 정식 근무하는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 학생들이 지난 30일 모교를 방문, 후배들과 담소를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해 취업 재수·삼수가 기본인 현실에서, 기능인이라면 누구나 꿈의 직장으로 여기는 삼성전자에 입성한 이들이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간을 낸 것이다. 이 중 김원표(25)씨는 2008년 전문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첫 직장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전문 기능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V대학에 입학했다. 2009년 금형과에 진학한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기능올림픽

에서 금형직종 동메달까지 따내며 당당하게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김운상(24)씨는 4년제 대학교 전 기과를 다니던 중, 어려운 집안 사정 탓에 조기 취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군대를 다녀온 후 과감히 자퇴서를 내고 폴리텍V대학 전기계측과에 입학했다. 이문이 뒷받침됐던 탓에 2년 동안 기능과 현장실습에 올인했다. 취업이 절박했던 만큼 학과수업 후 운영되는 취업동아리까지 가입했다.

결국 하루 24시간을 수업과 기능연마로 보낸 덕분에 기능올림픽에 입상했고, 이후 삼성전자의 취업은 어렵지 않았다. 이날 모교를 방문한 이들은 대부분 기존에 다니던 대학이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한 번쯤 좌절을 겪은 이들이다.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 이들의 취업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이들은 이날 후배들을 만나 사회의 실패담과 성공 노하우를 얘기하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월부터 정식 출근하는 김재권(24)씨는 "힘겨운 취업문을 뚫고 나니 이제 희망이 보인다"며 "토끼해가 나에게 행운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는 올해 총 270명의 졸업생 중 248명이 취업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만 120명에 이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형 총 10년 선고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에 대해 총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민)는 지난 30일 각종 공사발주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총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원 50명 기소 노조사무실 점거·폭력 혐의

검찰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불만을 품고 '노조 탄핵'을 주장하며 점거시위와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금호타이어 노조원 5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지난 30일 '노-노 갈등' 과정에서 노조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금호타이어 대표회장 김모(42)씨 등 노조원 5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조원들이 설치한 전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사움을 벌인 사측 관계자 5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55명 가운데 39명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16명은 약식기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이는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급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최대 원리 50%할인 / 영하 전년 12회 무료 / 주유, 여비 배당 20만 할인 / 학원 배당 10만 할인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 파트라

60여 개국에 수출하는 WORLD-CLASS CHAIR 파트라

파트라는 우리 디자인과 기술로 만든 제품을 세계에 공급하는 자랑스러운 한국브랜드입니다. 뉴욕에서도 밀라노에서도 나라는 달라도 가슴에는 모두 PATRA를 선명하게 알고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의자, PATRA를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CG4812PA
패브릭 좌판
플라스틱 오발
☎ 21842737
₩ 235,400

CG4811PA
패브릭 좌판
헤드레스트
플라스틱 오발
☎ 21842738
₩ 250,800

CG4812A
패브릭 좌판
알루미늄 오발
☎ 21842740
₩ 256,300

CG4811A
패브릭 좌판
헤드레스트
알루미늄 오발
☎ 21842741
₩ 279,400

CG4812A-A
인조가죽 좌판
알루미늄 오발
☎ 21842742
₩ 279,400

CG4811A-A
인조가죽 좌판
헤드레스트
알루미늄 오발
☎ 21842743
₩ 301,400

CG4812PAB
패브릭 좌판
오우받침
플라스틱 오발
☎ 21842744
₩ 237,600

CG4811PAB
패브릭 좌판 / 오우받침
헤드레스트
플라스틱 오발
☎ 21842745
₩ 258,500

CG4812AB
패브릭 좌판 / 오우받침
오우받침
알루미늄 오발
☎ 21842747
₩ 266,200

CG4811AB
패브릭 좌판 / 오우받침
헤드레스트
알루미늄 오발
☎ 21842748
₩ 288,200

CG4812AB-A
인조가죽 좌판
오우받침
알루미늄 오발
☎ 21842749
₩ 288,200

CG4811AB-A
인조가죽 좌판 / 오우받침
헤드레스트
알루미늄 오발
☎ 21842750
₩ 311,300

☎ 나라당터에서 현대금속 → 견본 → 으로 검색하세요

www.patrakorea.com 광주 대리점 (한보기구) | (주)파트라 광주, 전남·북 총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1-7 | TEL (062)232-2490